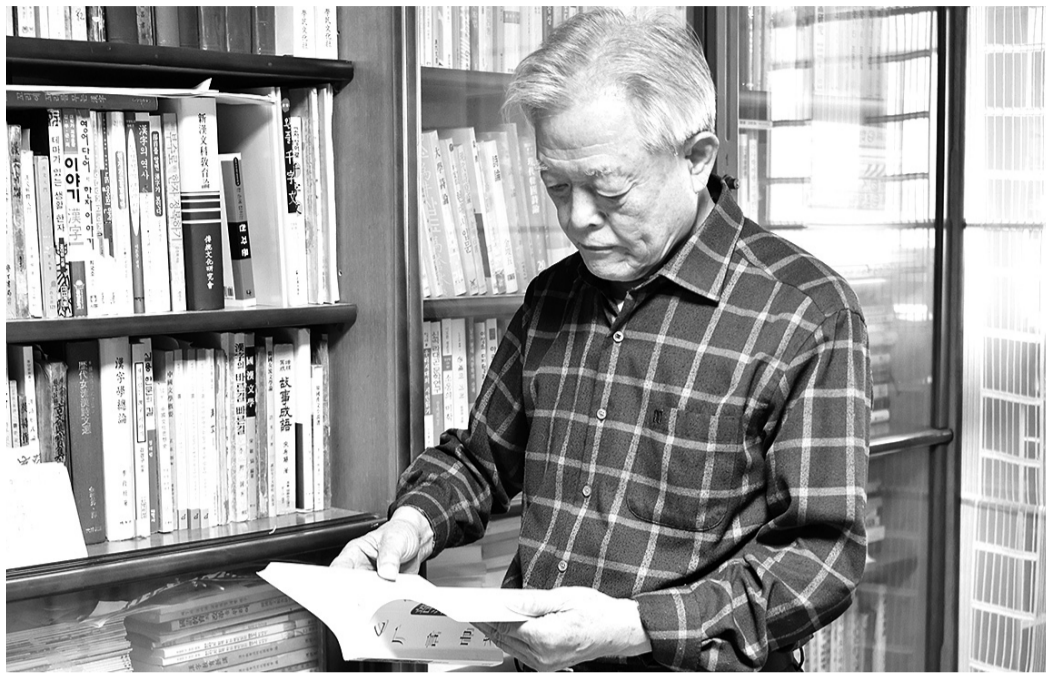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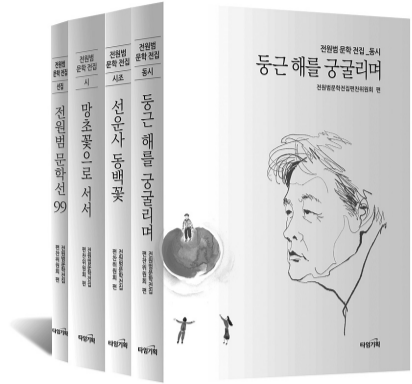


‘詩 인생 60년’ 4권에 담았습니다

전원범 시인, 시·동시·시조 전집 발간
1972년 동시로 등단...42년 교직생활
서정성 주력...한국적 정서 작품 많아
문학전집편찬위, 29일 출판기념회



서재에서 책을 보고 있는 전원범 시인.

〈타임기획 제공〉

‘해의 시인’으로 불리는 전원범 시인(광주교과대 명예교수)이 60년 창작활동을 갈무리하는 전집 4권을 발간해 화제다.

지난 1972년 광주일보 전신 옛 전남일보 신춘문예에 동시로 문단에 나온 그는 이후 1981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시조 당선, 1981년 시문학에 시 천료 등 끊임없이 영역을 확장하며 자신만의 창작세계를 일구었다.

그는 “이번 전집 발간은 문단생활 60년을 정리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시와 동시, 시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세 장르를 균형적 시각으로 창작했다는 점에서 감회를 느낀다”고 말했다.

언급한대로 그처럼 그는 한 장르도 어려운데 세 장르를 오가며 창작활동을 이어왔다. 그만큼 시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다는 방증일 것이다.

“교직생활을 총 42년 했습니다. 초등학교, 중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고 모교인 광주교대에서 교수로 역임했어요. 가르치는 일과 문학을 하는 일을 병행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그 사이 시를 화두로 삼고 창작활동을 펼쳐왔죠.”

‘해의 시인’이라는 별칭은 그가 발표한 연작시 ‘해’에서 비롯됐다. 모두 70여 편을 썼고 해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형상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가 생각하는 시는 일상의 말이 아니다. “시인의 감성을 통해 표현된 느낌의 언어요, 시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해석된 말”이다.

“오늘날 우리 현대시는 난해하고 언어가 정련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시는 시작 사유가 합일하

는 문학의 표현이 요구되는 장르일 뿐, 언어가 어려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세 장르를 전작해왔기에 그만의 창작에 대한 철학이 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의 덕목은 ‘서정성’. 전 시인은 “한결같이 서정성을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운 작품을 쓰려 노력했다”며 “그러다 보니 한국적 정서에 토대를 쓴 작품을 많이 쓰게 됐다”고 부연했다.

지난 60년 동안 서정시에 전착하게 된 이유다. 남다른 양식과 정서를 고민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그는 ‘동심의 시’라는 개념을 정립해 동시도 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60년대부터 주장한 이 개념은 시의 수준을 격상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시로 써야 할 것은 시로 쓰며 시조적 양식에 맞는 것은 시조로 창작합니다. 물론 동시적 정서는 동시로 쓰지요. 성인과 어린이 독자에게 각각 맞도록 언어나 발상, 해석을 다르게 고려해 세 장르를 창작합니다.”

언급한 대로 이번에 펴낸 전집은 ‘망초꽃으로 서서’ (시), ‘선운사 동백꽃’ (시조), ‘동근 해를 궁굴리며’ (동시), ‘전원범 문학선99’ (선집) 등 모두 4권이다.

먼저 ‘엄마는 학교다’라는 동시는 그의 시에 대한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평이하지만 깊이와 울림이 있다. 모든 세상의 근원이자 배움의 근원이 ‘엄마는 학교다’라는 절정으로 수렴된다.

“잘못 쓴 글자를 지우개로 지우듯/ 엄마가 호미로 풀을 매신다/ 고추 모 줄을 바로 세우고/ 채소를 복돋아 주고/ 밭에서는 엄마가 선생님이다// (중략) 엄마 무릎은/ 엄마 손은, 가슴은/ 우리들의 학교다”

‘선운사 동백꽃 1’이라는 시조 작품이 주는 서정성도 탁월하다. 가만히 읊조리면 한 편의 고아한 노래를 듣는 느낌이다. “한 아낙이 불렀던/ 백제적 선운산가// 천년 내내 숲불로 타며/ 동백꽃으로 피는데// 울해도 똑똑 지고 있네/ 기다림의 눈물로” 이처럼 작품은 역사, 기다림, 동백꽃, 아낙을 모티브로 정갈하면서도 고아한 이미지를 선사한다.

염창권 시인(광주교대 교수)은 “전원범의 시조가 보여 주는 주된 정조는 그리움이며, 그의 정신이 거처하는 곳은 회상의 언덕이다”며 “그의 회고적 정서는 어찌 보면 탄식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쓸쓸하면서 맑은 정신 지향은 번잡한 우리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휴식처를 마련하여 준다”고 평한다.

전 시인은 세종대 대학원 국문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시집 ‘젊은 현재 원료’, ‘달개비꽃’과 동시집 ‘종이꽃의 기도’, ‘꽃들의 이야기’를 펴냈으며 시조집 ‘걸어가는 나무’, ‘맘뎀으로 서는 나무’ 등을 발간했다.

한편 전집 출간을 기념하는 출판기념회가 오는 29일 오후 5시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에서 전원범문학전집편찬위원회 주최로 열린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고즈넉함 품은 강진의 풍류를 찾아서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29일 영랑생가 등 탐방

영랑의 시혼과 문학적 생애가 응결돼 있는 강진 생가와 그의 문학시문학파기념관, 호남의 3대 정원으로 꼽히는 백운동 원림 등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김택진)은 오는 29일(오전 9시) 열두 번째 지역문화교류마당으로 ‘고즈넉함 가득 품은 강진의 풍류를 찾아서’를 마련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강진 역사와 문화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한국 서정시를 이끈 영랑의 문학정신을 살펴보는 취지로 마련됐다.

탐방코스로 전라병영성 하백기념관을 거쳐 호남 3대 정원으로 꼽히는 백운동 원림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 다산 정약용의 유배 장소인 사의재(四

宜齋)를 탐방한 뒤 백수인 시인과 함께 영랑생가 및 시문학파기념관을 방문해 시인과 관련된 작품과 문학 생애에 대해 들을 계획이다.

마지막 코스는 강진만생태공원에서 참가자들과 만남과 소통을 나눌 예정이다.

참여자는 선착순 20명이며 희망자는 재단 사무처(062-234-2727)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 3만원(후원회원 1만원)이며 식사비 및 답사 비용 모두 포함돼 있다.

한편 12회째 진행되고 있는 지역문화교류마당은 도시를 풍성하게 만드는 지역의 문화적 요소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교류를 매개로 문화공간대형성을 꾀하고자 기획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 창작희곡공모전, 양예준씨 우수상

‘청춘, 마음의 끈 한 가닥’ 지역색·소시민 생활상 그려

광주다움의콘텐츠를발굴하기 위해 개최된 제5회 광주광역시 창작 희곡 공모전 수상작이 가려졌다.

이번 창작희곡공모전은 대상작 없이 우수상(차상)에 양예준씨(경기)의 ‘청춘, 마음의 끈 한 가닥’이 선정됐다. 우수상(차하)에는 박소현씨(서울)의 ‘조선인 거리, 광주극장’, 박숙자씨(광주)의 ‘그때는 시작에 불과했다’가 각각 선정됐다.

올해 5회째를 맞은 공모전에서는 9편이 본심에 올랐다. 심사위원들은 고민 끝에 대상작 없이 우수상 차상 한편, 차하 두 편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들은 ‘청춘, 마음의 끈 한 가닥’에 대해 “지역색을 드러낸 맛깔나는 대사와 소시민이 살고 있는 생활상을 역력히 드러낸 점을 높이 평가한



양예준 씨



박소현 씨



박숙자 씨

다, 하지만 인간의 군상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치열한 인간관계로 몰아갔으면 한다”고 평했다.

한편 이번 창작 희곡 공모전은 광주광역시 서구와 광주 서구문화원이 주최·주관했으며 수상작들은 올해 11월에 열리는 광주시민연극제에서 공연을 통해 만날 수 있다. 또한 제9회 광주시민연극제의 참가 극단은 5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모집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어린이들에 우리 전통문화 체험 기회

광주연꽃문화제, 29일 동구청소년수련관

(사)동편과 광주전남 불교어린이청소년연합이 주최하는 제16회 광주연꽃문화제가 오는 29일 오전 9시 광주 동구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다.

이번 연꽃문화제는 어린이들에게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다양성, 우리문화 전통 계승 차원의 창작활동(글짓기와 그리기)을 북돋우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를 통한 다양한 불교문화체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

자는 취지도 포함돼 있다.

이번 연꽃문화제는 유치부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크게 글짓기와 그리기 부분으로 나눠 진행된다.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글짓기, 그리기(도화지, 원고지 현장 배부), 작품제출, 부스 체험, 장기자랑(공연 포함) 등으로 펼쳐진다.

이번 연꽃문화제는 동편 광주지부와 동편 어린이청소년협회 광주지부가 주관하며 광주시교육청 등이 후원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남 특화 문화예술사업 발굴

전남문화재단 20억 규모 문진금 지원사업...지역 브랜드 발굴 등

전남문화재단(이하 재단)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조기 확보를 통해 지난해부터 5년간 100억 규모의 기금사업을 추진중이다. 재단은 전남특화문화사업 발굴을 위해 20억원 규모의 2차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올해 운영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은 총 4개 사업이다.

‘전남 문화예술 브랜드 육성사업’은 공모형과 기획형으로 나눠 진행한다. 공모형 사업은 지역 콘텐츠를 활용한 숙박사업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재단이 진행하는 사업으로 최대 1억원 매칭이 가능하다. 기획형 사업은 사업추진단을 선발해 진행

하는 지역 브랜드 발굴 사업이다.

‘사회적가치 지향 청년 프로젝트’는 도내외 청년문화기획자 15명을 선발해 전남의 생태위기, 지역공헌활동 등 사회적 가치를 확대하는 문화예술 기획사업이다. 월 140만원의 활동비와 프로젝트 수행비로 연간 1000만원이 지원된다.

‘원스톱 창작지원 프로젝트’는 신진예술가로 구성된 10팀을 선정해 작품의 창작, 발표, 홍보, 유통, 상품화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트&테크 융복합 창작 지원사업’은 예술과 기술이 융합된 창작활동의 저변확대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사업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